

서평 | Review

루스 버린스 콜리어와 데이비드 콜리어의 『정치적 장의 형성』¹⁾

이상현

라틴아메리카 연구: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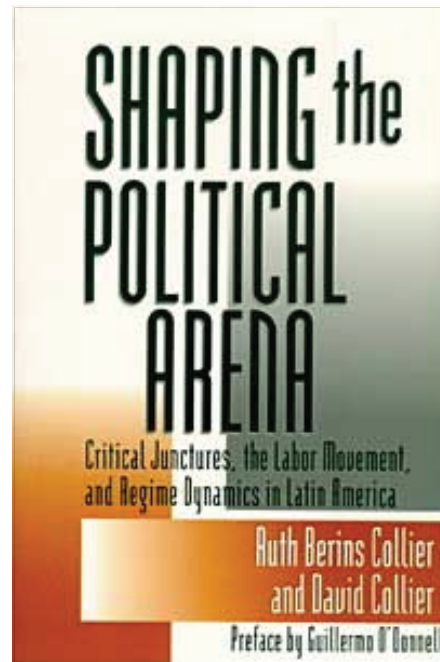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 연구, 특히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많아 대학원에 진학한 필자는 20개가 넘는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역사와 함께 수많은 개념과 이론에 직면하였다. 종속이론, 근대화론, 수입대체산업화, 국가, 노동, 포퓰리즘, 페론주의, 관료적 권위주의론, 민주주의론, 민주화이론, 혁명 등... 한편 이러한 개념과 이론의 홍수 속에서 막 공부를 시작한 대학원생의 머릿속에는 단순한 의문이 끝없이 전개되었다. 무엇을 연구하지? 지역연구자는 해당 지역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나? 이론? 나는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론을 만드는 사람인가? 지역연구자도 이론을 생산해야 하나? 방법론? 어떤 방법론을 어떻게 써야 하지? 지역연구자도 방법론을 알아야 하나? 의문은 끝이 없었다.

돌이켜 보면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것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다.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지가

1) Ruth Berins Collier and David Collier, *Shaping the Political Arena, Critical Junctures, the Labor Movement, and Regime Dynamics in Lati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이미 정해져 있던 전통 학문영역의 연구자들과는 달리, 다학문적 특징을 지닌 지역연구자는 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논쟁한다. 물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 대상과 방법을 자유로이 넘다들며 현실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역연구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올바른 대상과 방법의 선정은 지역연구자의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다.

석사논문을 쓰면서도 이러한 기초적인 고민은 지속되었다.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필자는 후일 박사논문의 지도교수가 된 마드리드(Raúl Madrid) 교수의 ‘라틴아메리카 정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란 수업에서 루스 버린스 콜리어와 데이비드 콜리어가 쓴 이 책 『정치적 장의 형성』을 만났다. 이 책에 대한 첫 번째 느낌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20세기 라틴아메리카 주요 8개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의 국가와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정치체제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를 이론화한 『정치적 장의 형성』을 펼쳐든 필자는 우선 그 분량에 놀랐고, 8개국의 수십 년에 달하는 연구 범위에 놀랐으며,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하나의 이론과 모델로 담아낸 대담함에 놀랐으며, 그렇게 만든 이론의 창의성과 정교함에 놀랐다. 본문 774페이지에 부록을 합쳐 877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주요 8개국을 비교연구하고 주요 이론을 창출함으로써, 왜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연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질적 방법론을 이용하면서도 정교하게 고안된 개념에 기반을 두어 연구 모델을 창출하였으며, 연구 대상 국가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어 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지역연구의 목적과 이론 창출이라는 사회과학 연구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루스 버린스 콜리어와 데이비드 콜리어의 연구는 질적 방법론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를 정교한 개념과 치밀한 모델로 극복함으로써 방법론적인 숙제도 해결해 주었다. 학기 중에 수업준비를 위해 바쁘게 읽으면서도 필자는 이 책을 통하여 오랜 고민이 해소되는 것 같았다. 한 마디로 눈이 번쩍 뜨였다. 라틴아메리카 연구자 특히 사회과학 연구자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지에 대한 정답을 찾은 것 같았다. 학부 또는 대학원의 비교정치학 수업에서 쓰이는 대표적인 교과서이기도 한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연금 개혁을 연구한 마드리드 교수의 『국가의 은퇴: 라틴아메리카와 세계의 연금 민영화의 정치학』(Retiring the State: The Politics of Pension Privatization in Latin America and Beyond)와 함께 향후 필자의 박사논문과 후속 연구를 위한 교본이 되었다. 이에 필자는 이 책을 라틴아메리카 정치학을 대표하는 명저의 하나로 추천한다.

루스 버린스 콜리어와 데이비드 콜리어

『정치적 장의 형성』의 공저자인 루스 버린스 콜리어(Ruth Berins Collier)와 데이비드 콜리어(David Collier)는 동료이자 부부로 지금까지도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정치학과에 함께 재직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획득한 콜리어 부부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물을 남겼다. 우선 부인 루스 버린스 콜리어는 아프리카 정치를 연구한 경험으로 데이비드 콜리어와 함께 『정치적 장의 형성』을 함께 쓰게 되었다. 데이비드 콜리어에 따르면, 『정치적 장의 형성』에서 브라질, 칠레, 멕시코, 베네수엘라 사례에 집중



루스 컬리어(좌)와 데이비드 컬리어(우)

한 루스 컬리어는 『정치적 장의 형성』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노동 및 시민 참여와 관련한 연구에 집중한다.

한편 데이비드 컬리어는 『정치적 장의 형성』을 쓰기 전에 이미 주요한 라틴아메리카 정치 연구자의 한 명이였다. 아버지가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하는 인류학자이자 고고학자였던 데이비드 컬리어는 가족 중 여러 명이 라틴아메리카 연구자였다. 즉 데이비드 컬리어는 아버지를 비롯하여, 할아버지, 두 삼촌 그리고 사촌들까지 모두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하는 라틴아메리카 연구자 집안의 일원이였다. 이러한 연유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데이비드 컬리어는 1960년대 말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 박사논문의 주제로 페루를 선택하였다. 당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벨라스코 군사정권이 들어선 페루에서 15개월의 현지조사를 수행한 데이비드 컬리어는 페루의 토지 무단점유 정착의 정치적 의미에 관한 연구로 박사논문을 썼다. 데이비드 컬리어의 라

틴아메리카에 대한 관심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데이비드 컬리어는 후속 연구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권위주의』(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를 1979년 발간하였는데, 여러 저자의 연구를 묶은 이 편저는 당시 라틴아메리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인 오도넬의 『근대화와 관료적 권위주의』(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권위주의』가 발간된 지 12년 만에 출판된 『정치적 장의 형성』은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권위주의』의 후속 연구이자 속편으로 20세기 후반부에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보이는 정치체제의 역사적 기원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페루에서 극과 극의 정치 체제 변화를 경험한 데이비드 컬리어가 라틴아메리카 지역,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국가인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등에서 1960년대와 70년대 발생한 군사 정권의 원인과 성격을 비교하여 시도한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권위주의』 연구를 더 큰 역사적 그림 속에서 설명을 시도한 것이 『정치적 장의 형성』이다. 즉 『정치적 장의 형성』은 데이비드 컬리어의 연구가 단계적으로 확장된 결과의 산물로서, 20세기 후반부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에서 나타난 각기 다른 정치체제의 원인과 기원을 역사적 틀을 통하여 이론화한 연구이다.

데이비드 컬리어는 『정치적 장의 형성』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보다는 개념과 방법론 연구에 매진한다. 데이비드 컬리어는 『정치적 장의 형성』을 집필하며 고민한 방법론적 문제의 해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데이비드 컬리어의 방법론 연구는 2009년 존 게링(John Gerring)과 함께 쓴 『사회과학의 개념과 방법』(Concepts and Method in Social Science)과 2010년 『사회조사 다시 생각하기』(Rethinking Social Inquiry) 등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외에도 데이비드 컬리어는 사회과학 방법론에 관한 중요한 논문을 저술하였다.

국가-노동관계,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 정치체제 변동

『정치적 장의 형성』의 연구목적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말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변동과 체제변화를 설명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델을 만드는 목적은 현대 라틴아메리카 정치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컬리어 부부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말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변동과 체제 변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로 국가와 노동관계를 들었다.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19세기 후반부터 축적된 사회경제적 변화는 20세기 전반부의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 또는 역사적 전환기를 통해 각기 다른 정치체제로 이어진다는 것이 컬리어 부부의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다. 루스 버린스 컬리어와 데이비드 컬리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이러한 결정적 국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19세기 말부터 급격하게 영향력을 확대한 노동운동과 노동계급을 국가 또는 체제가 어떻게 동원하거나 통제했는가라는 문제를 꼽으며, 국가별로 각기 다른 조직 노동자 포섭 형태는 이후 각기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컬리어 부부의 모델은 포섭의 시기(incorporation period), 여파의 시기(aftermath period), 유산의 시기(heritage period)로 구분된다. 포섭의 시기는 노동운동을 동원 또는 통제하려는 시기를 말하는데, 조직 노동자가 국가 구조에 포섭되는 시기는 이후 오랜 기간(여파의 시기와 유산의 시기) 동안 해당 국가의 정치문화를 결정하게 되는 역사의 ‘결정적 국면’이 된다.

루스 버린스 컬리어와 데이비드 컬리어는 이를 주장하기 위하여 8개국 비교 연구를 실시한다. 이들은 8개국을 포섭의 특징에 기반을 두어 각각 2국가씩 4개의 짝(pair)으로 만든다. 4개의 짝은 1개의 국가 포섭의 짝과 3개의 정당 포섭의 짝으로 구분된다. 즉 브라질(1930~1945)과 칠레(1920~1931)는 ‘국가 포섭 사례’, 우루과이(1903~1916)와 콜롬비아

(1930~1945)는 노동조합과 연계가 없는 ‘전통적 정당에 의한 노동 포섭 사례’, 페루(1939~1945)와 아르헨티나(1943~1955)는 농민의 결합 없이 노동조합과 연계를 가진 정당 또는 정치운동에 의한 ‘노동 포퓰리즘 사례’, 마지막으로 멕시코(1917~1940)와 베네수엘라(1935~1948)는 노동조합과 연계를 가진 정당에 의하여 농민까지 결합된 ‘급진 포퓰리즘 사례’로 규정한다. 즉 국가 또는 정당으로 구분되는 노동운동 포섭의 주체와 농민의 결합 유무에 따라 4개의 짝으로 구분되며, 각 국가는 결정적 국면으로 칭할 수 있는 역사적 시기를 경험하는데, 결정적 국면은 브라질의 바르가스, 칠레의 이바네스, 멕시코의 카르데나스를 포함하는 혁명 후 제도혁명당 성립기, 아르헨티나의 페론 시기를 포괄한다.

한편 이러한 각기 다른 포섭의 시기와 이를 통해 형성된 정치체제는 여파의 시기를 거쳐 유산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정치체제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브라질과 칠레로 대표되는 ‘국가 포섭 사례’의 경우, 국가에 의해 관료화되고 통제됨으로서 노동계급의 정치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동 포섭은 결국 유산의 시기에 노동운동이 다시 정치화되고 급진화된다. 즉 이 경우 포섭의 시기에 국가가 노동운동을 통제함으로써 노동운동과 연계를 가진 정당이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 다당제적 성격을 지닌 정치적 분열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유산의 시기에는 군부 쿠데타로 귀결된다. 한편 ‘국가 포섭’과 가장 반대되는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의 ‘급진 포퓰리즘’ 사례의 경우, 포섭의 시기에 노동통제를 주도한 정당은 여파의 시기에 주도적인 정당이 되며, 이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치 전략의 고사로 이어진다. 실용적으로 중도적 정치적 성향을 지니며 좌파 정당의 입지마저 차지하게 되는 주도정당은 노동자와 농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산의 시기에도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며 군부 쿠데타도 없는 정치문화를 형성한다.

앞서의 두 극단적 사례의 중간에 해당하는 사례 중 우루과이와 콜롬비아로 대표되는 노동조합과 연계가 없는 ‘전통적 정당에 의한 노동 포섭

사례'의 경우, 포섭을 이끈 전통적 정당이 지속적으로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며 정치 갈등을 억제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포섭의 시기를 이끈 전통적 정당이 노동조합과의 연계가 없는 이유로, 유산의 시기에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노동운동이 발전하는데, 이는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군부 쿠데타(우루과이) 또는 지속적인 정치 폭력(콜롬비아)으로 귀결된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와 페루로 대표되는 '노동 포퓰리즘'의 경우, 포섭의 시기를 이끈 정당은 급격히 굴복하거나(페루 APRA의 경우) 무력에 의해 권력에서 축출된다(페론당). 중도의 길을 걷게 되는 이런 정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지지 또는 관계를 유지한다. 결국 이 사례는 유산의 시기에 노동조합의 지지 또는 연계를 가진 정당에 반대하는 군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반복되는 군사 쿠데타로 귀결되며 끊임없는 정치체제의 변화에 시달린다.

결론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현대사는 20세기 초 국가 또는 정치 엘리트가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조직 노동자 세력을 어떻게 포섭 또는 통제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정치체제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해당국 정체체제 변화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정치 그리고 방법과 이론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정치적 장의 형성』을 비판하는 것은 요약을 시도하는 행위만큼이나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비판이 목적이라면, 비교연구 특히 이처럼 많은 국가의 폭넓은 시기를 포괄하는 비교연구에 대한 비판은 쉬울 수도 있다. 연구의 목적이 이론의 창출인 비교연구는 특정 사례의 사실을 어떻게 통제하여 설명하는가에 따라 사실과 거짓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대한 사실을 하나의 모델로 이론화한 경우, 단편적 비판은 더욱 쉬워진다. 창의성이 없는 연구, 논쟁이

없는 연구, 타인의 이론을 풀이한 연구, 당연한 사실을 나열한 연구일수록 논쟁은 의미가 없고 비판은 무기력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켈리어 부부의 연구는 무수한 찬사와 함께 지속적인 비판과 논쟁을 낳으며, 수많은 연구자에게 평생 연구할 과제를 산더미 같이 제시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유로 본 글에서는 비판과 논쟁 대신에 켈리어 부부의 연구가 지역 연구와 정치학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루스 버린스 켈리어와 데이비드 켈리어의 『정치적 장의 형성』은 라틴아메리카 정치사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반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많은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은 일찍이 20세기 초의 역사를 주목했다. 즉 멕시코 혁명과 제도혁명당 체제의 성립, 페론주의, 바르가스주의 등의 포퓰리스트 정치 등 20세기 초의 다양한 정치적 결과들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라틴아메리카 정치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되었으며, 다양한 연구결과로 이어졌다. 종속이론, 코포라티즘, 포퓰리즘, 혁명과 체제변동, 노동운동론 등 개별 연구와 이로 인해 산출된 다양한 이론은 이 시기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가 주목 받은 이유는, 켈리어 부부도 주목했듯이, 이 시기에 일어난 정치변동이 20세기 전체 시기의 라틴아메리카 정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루스 버린스 켈리어와 데이비드 켈리어 연구의 우수성은 라틴아메리카의 특수성으로 인식되어온 수많은 논의와 쟁점을 하나의 모델로 묶어 일반화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즉 켈리어 부부의 연구는 국가와 노동관계의 형성이라는 결정 요인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각국이 직면했던 매우 실질적인 역사적 퍼즐뿐만 아니라, 국가와 노동 그리고 정치체제간의 관계 전체를 포괄하는 이론적 퍼즐에 대한 해답까지 제시하고 있다.

한편 루스 버린스 켈리어와 데이비드 켈리어의 연구는 무엇보다도 지역연구자가 사회과학을 하는 이상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엄밀한 개념과 모델의 창출에 기반을 둔 이론

화를 추구하며 비교역사적 분석(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의²⁾ 방법을 통하여 증명을 시도한 컬리어의 방법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이론의 창출이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하나의 연구에서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 즉 수십 년간 회자되며 논쟁이 될 이론을 제시함은 물론, 사례국의 19세기말부터 20세기 정치사를 이론적 목적 기반위에서 적절한 통제 하에 살펴본 사례 연구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자료집이자 역사서이다.

또한 루스 버린스 컬리어와 데이비드 컬리어의 연구는 비교연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각기 다른 4개의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을 지닌 2개의 사례를 묶은 4개의 짝을 보여줌으로서, 유사성과 상이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는 비교연구의 본래 목적을 모델의 구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컬리어의 연구는 정치학은 물론 사회학과 역사학과 지역연구를 훌륭하게 접목하며 학제간 연구가 하나의 연구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루스 버린스 컬리어와 데이비드 컬리어의 『정치적 장의 형성』은 많은 장점을 넘어 이정표의 성격을 지닌 명저이다. 라틴아메리카에 관심을 가진 독자는 물론 지역연구와 비교정치 그리고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독자들이 반드시 접해야 할 필독서라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컬리어 부부의 『정치적 장의 형성』은 1970년대 말 라틴아메리카 군부 정권의 등장을 넓고 큰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하기 위해 시작하여 1991년 부록을 합쳐 800페이지가 넘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연구와 출판을 합쳐 무려 10년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책으로 빛을 보기까지 논문으로도 거의 출판되지 않은 『정치적 장의 형성』은 그야말로 긴 호흡을 가진 연구의 결과물이다.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의 연구

2) 대표적인 비교역사 연구들로는 배링턴 무어(1966)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테다 스카치폴(1979)의 『국가와 사회혁명』(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카르도소와 팔레토(1967)의 『종속과 발전』(Dependency and Development)을 들 수 있다.

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우리의 연구 환경에서는 그야말로 부러운 일이다. 아무쪼록 한국 학계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딛고 『정치적 장의 형성』을 뛰어 넘는 연구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Cardoso, Fernando Henrique and Enzo Faletto. 1979.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éri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llier, David (ed.). 1979.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llier David and John Gerring (eds.). 2009. *Concepts and Method in Social Science: The Tradition of Giovanni Sartori*, Routledge.
- Collier David and Henry E. Brady (eds.). 2010. *Rethinking Social Inquiry: Diverse Tools, Shared Standards*, Rowman & Littlefield.
- Madrid, Raúl L. 2003. *Retiring the State: The Politics of Pension Privatization in Latin America and Beyon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oore Jr., Barrington. 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eacon Press.
- O'Donnell, Guillermo A. 1973. *Modernization and bureaucratic-authoritarianism: studies in South American politics*,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 Skocpol, Theda. 1979.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상현 -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